

# 기도주간 · 2일

## 11월 30일, 월요일



###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라디오 사역부

크로아티아에서 22년 넘게 사역하고 있는 에릭 마로니 선교사는 유럽의 이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왜 삶과 사역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을 목격하고 사람들이 복음주의적 교회에 대해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에릭의 팀이 살며 사역하고 있는 곳은 인구 25만 명의 자그레브 서부로서, 침례교회는 단 한 곳 뿐입니다.

교회 개척가로서 아내 줄리와 함께 섬기고 있는 마로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찾고 있습니다. 라티문 크리스마스 헌금을 드림으로써 그의 사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14년 브라질의 한 사역 파트너가 라디오 사역에 관한 아이디어를 언급했을 때, 마로니는 이를 복음을 전하고 청취자들을 지역 모임과 연결시키기 위한 더 큰 전략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인 Radio Martin에 접촉했고, 그들은 이 방송국이 가톨릭 교회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송을 진행할 용의가 있었 습니다”고 마로니는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계약은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두 개의 15분짜리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었 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방송국 국장과의 관계를 쌓아갔으며 임대료를 낮추도록 협상할 수도 있게 되었고, 라디오 방송국에서 녹음했던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방송을 생방송 45분짜리 프로그램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사역 팀은 현재 진행자, 번역가, 기술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9개의 지역 파트너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일주일에 두 번씩 설교와 찬양과 성도들과의 인터뷰 그리고 청취자들의 전화 질문으로 방송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의 감독으로부터 보고된 청취율은 매 방송마다

“ 뿌러지고 있는 씨앗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이며, 시작되고 있는 교회들은 언젠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마을에서 다른 교회들을 시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에릭 마로니, 선교사

”

복음이 전파를 메운다.

imb

라티 문 크리스마스 헌금

[imb.org/lmco](http://imb.org/lmco)



4만 명 이상이 듣는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복음주의자가 총 7,000명에 불과한 나라에서 청취자의 수는 상당합니다.

마로니는 그들의 채널에 맞추는 모든 청취자들이 복음을 듣는데 몰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진리의 메시지에 자신들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로니와 그의 팀은 방송의 ‘광범위한 파종’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이미 라디오 방송 사역의 주요 영향력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서 한 남자가 듀고 셀로[교회]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몇 개월 간 찾아오더니 그는 화요일 저녁 자신이 소유한 빈 상점에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6개월 후에 그는 무심코 듀고 셀로 교회를 처음 방문한 이유가 처음부터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마로니가 전합니다.

비록 마로니가 크로아티아어로 라디오 설교를 준비하는데 20-30시간이 걸리지만, 그는 기꺼이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씁니다. 방송 외에도 마로니와 그의 파트너들은 지역 교회와 협력하여 기독교 자료들을 보급하고 마을 잡지에 월간 기사를 제공하며 전도 행사와 대중음악회를 주최합니다. 그들은 ESL 수업을 진행하고 여름 캠프를 개최합니다.

복음은 남침례교의 신실한 헌금으로 말미암아 방송 전파와 크로아티아의 거리에까지 전해 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현지 파트너들이 크로아티아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디오 방송 사역을 통하여 많은 교회 개척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드는 수만 명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전파를 메운다.**